

일본의 새소식

在大韓民國日本國大使館公報文化院
☎ 03131 서울특별시 중로구 율곡로 64 Tel 02.765.3011~3

08

2016 | Vol. 538

돗토리 사구(鳥取砂丘)

Photo : Kazuhisa Ishikawa

일한 외교장관회담

7월 25일 라오스 개최



7월 25일(오전 9시 15분경부터 약40분간(현지 시간)), ASEAN 관련 외교장관회의 참석차 라오스를 방문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무대신은,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일한 외교장관회담을 가졌다. 개요는 다음과 같다(배석자 : 일본 측 가나스기 겐지(金杉憲治) 아시아대양주 국장 외, 한국 측 정병원 외교부 동북아국장 외).

- 일한 관계와 관련해, 윤병세 장관은 작년 말에 이루어진 위안부 문제에 관한 합의에 따른 재단설립 준비 상황에 대해 설명했고, 양국 외교장관은, 일한 양측이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기로 했다. 또 기시다 외무대신은 일한 양국의 전향적인 협력 추진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고, 여러 난제에 대해서도 간결히 제기했다.
-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에 대해, 기시다 외무대신은 일한·일한미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납치 문제를 포함한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해, 일한이 협력해가기로 하는 한편, 양국 장관은 북한 문제에 대해 계속 긴밀히 공조해 가기로 했다. 또 기시다 외무대신은, 일본은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 사드) 체계의 배치 결정을 지지한다는 뜻을 밝혔다.
- 양국 장관은 남중국해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가기로 하는 한편, 이번 라오스에서 진행되는 일련의 ASEAN 관련회의에서도 긴밀히 협력할 것을 확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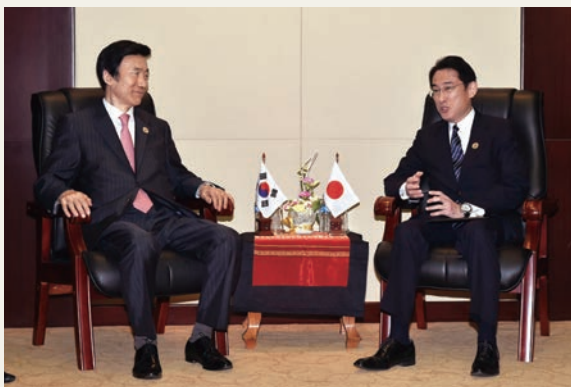


Photo :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Japan

한일축제한마당 in Seoul 2016

10월 2일 코엑스 B홀 개최

한국과 일본 양국간 최대 규모의 문화교류 축제인 '한일축제한마당' in Seoul 2016이 오는 10월 2일(일) 코엑스 B홀에서 개최된다. 일한국교정상화 40주년을 기념하는 '일한 우정의 해 2005'의 주요 사업으로 시작된 '한일축제한마당'은 양국 최대 규모의 풀뿌리 문화교류 행사로 성장해 왔으며, 12회째를 맞이하는 올해는 양국의 새로운 50년을 시작하는 해로서 '함께 만들자 새로운 50년'을 테마로 다양한 무대공연과 부스행사를 진행한다. 양국 문화에 관심 있는 분은 물론,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무료 입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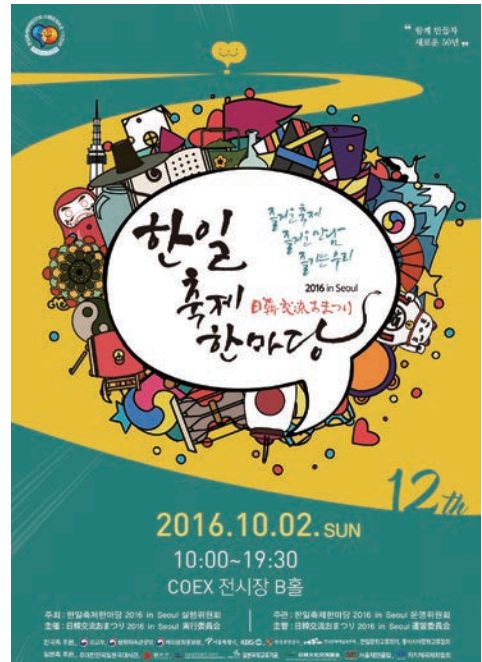
일 시 10월 2일(일) 10:00~19:30 **장 소** 코엑스 B홀
테 마 함께 만들자 새로운 50년 **슬로건** 즐거운 축제, 즐거운 만남, 즐기는 우리
주 최 한일축제한마당 2016 in Seoul 실행위원회
주 관 한일축제한마당 2016 in Seoul 운영위원회
후 원 (한국측)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 서울특별시, KBS, 한국관광공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일문화교류회의, 동아시아문화교류협회 (일본측) 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 관광청, 일본정부관광국, 일본국제교류기금, 일한문화교류기금, 서울재팬클럽, 일본자치체국제화협회
문 의 한일축제한마당 2016 in Seoul 한국측운영사무국 02-702-7775

특히 올해는 '함께 만들자 새로운 50년'이라는 테마에 맞춰 다채로운 무대를 마련하고 있다. 양국의 전통과 현대의 만남, K-POP과 J-POP 특별공연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 출연진과 관람객이 함께 참여하는 피날레 마당놀이 등이 진행된다.

또, 양국의 문화를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부대행사를 통해 볼거리, 먹거리, 놀거리 등 오감을 만족시키는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하여, 축제의 매력은 물론 재미와 즐거움까지 선사한다. 관람객 체험 프로그램으로 한복·성균관 유생·기모노 등 전통의상 체험, 제기차기, 겐다마 등 전통놀이문화 체험과 양국의 먹거리를 행사장 곳곳에서 체험할 수 있는 이벤트 부스가 마련된다.

다나카 마사시(田中将志) 운영위원장은 "한국과 일본 문화 교류의 저변을 확대하여 양국이 더 한층 가까워졌으면 한다. 또 '함께 만들자 새로운 50년'이라는 테마처럼, 새로운 미래에 대한 희망을 함께 하기 바란다."며 "한국과 일본을 대표하는 축제로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양국 국민에게 널리 알리는데 힘쓰겠다", 끝으로 매년 성공적인 행사를 함께 하는 많은 자원봉사자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공식 홈페이지 <http://omatsuri.kr> **블로그** blog.naver.com/kj_omatsuri
인스타그램 instagram.com/kj_omatsuri **페이스북** facebook.com/kjfestivalseoul



구마모토 지진 복구현황



외국인을 위한 방재세미나

2016년 4월, 구마모토 지진

지난 4월 14일과 16일, 봄기운이 한창 무르익어 가던 구마모토(熊本)는 연이어 덮친 최대 진도 7의 지진으로 큰 상처를 입었다. 꼬박 3개월의 시간이 흐른 7월 14일 현재, 진도 1 이상을 기록한 여진은 무려 1,880회가 넘었고, 이 중 진도 3 이상을 기록한 것만 해도 380여 회에 달한다. 구마모토 시내를 비롯하여 가장 큰 피해를 입었던 마시키텩(益城町), 미나미아소촌(南阿蘇村) 등 구마모토현내 16개 시정촌(市町村)에 마련된 94곳의 피난소에서는 아직도 약 4,700명의 이재민이 생활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6월 중순부터 폭우를 동반한 장마가 한달 가까이 이어지면서 지진으로 약해진 지반을 할퀴고 지나가 농경지와 하천, 도시

기반시설에 막대한 추가 피해를 불러왔고, 이로 인해 지진 복구는 물론 이재민의 일상 복귀도 더뎠다.

복구를 위한 분주한 움직임과 응원의 손길

지진의 상처가 채 아물지 않은 상태에서 찾아 온 긴 장마까지, 자연 재해로부터 비교적 안전지대라고 여겨왔던 구마모토의 주민들에게는 그 어느 해보다 힘겨운 여름날이 이어지고 있지만, 복구를 위한 민관의 노력과 시민들의 차분한 움직임도 흔들림 없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구마모토는 재해 지역에 따라 주택의 파손 등으로 인해 피난소 등지에서 생활하고 있는 이재민이 상당수인 곳부터, 기반시설이 복구되어 재해 전과 다름 없는 생활을 하고 있는 지역까지



복구공사를 시작한 구마모토성의 이이다마루 고카이야구라(飯田丸五階櫓)



복구 중인 상점들 사이로 활기를 되찾은 가미토리(上通)

다양한 상황이다. 행정기관에서는 장기간에 걸친 대책을 마련하는 가운데서도 가설주택 마련과 생활 재건 등 주민들의 안정된 일상 복귀를 가장 우선시하여 복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를 위한 이재증명서(자연재해에 따른 주택 등의 피해 정도를 시정촌(市町村)이 증명하는



피난소를 찾아 이재민을 위로하는 구마몬

것으로, 각종 재해자 지원제도 적용의 판단자료로 활용) 발급 절차에 많은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다. 또한, 재해 상황에 따른 각종 생활지원 정보를 수시로 갱신하여 다국어로도 제공하고 있으며, 생활환경 변화와 외상 후 스트레스에 따른 심리상담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며 긴 호흡의 지원 활동을 해나가고 있다.

지진 발생 직후의 물자 지원과 전기, 가스, 수도 등 이른바 라이프라인의 복구에는 과거에 지진 재해를 겪은 지역의 지자체를 비롯, 인근 지역과 정령지정도시 간 협력체계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거주자의 입회 하에 가능한 도시가스공급 재개 작업은 규슈(九州) 지역은 물론 전국 각지의 가스회사에서 주택과 아파트 단지를 일일이 돌아다니며 복구했는가 하면, 재해로 발생된 방대한 쓰레기는 규슈를 비롯한 전국 지자체에서 차량과 인력을 지원해 현재까지도 처리를 분담하고 있다.

구호물자를 보내 온 한국 정부를 비롯하여 국내외에서 보내오고 있는 지속적이고 따뜻한 성원과 의연금 기부, 민간 자원봉사자의 활동은 복구 과정에 큰 힘이 되고 있다. 구마모토시 재해볼런티어센터에서는 SNS와 홈페이지를 통해 매일 복구의 손길이 필요한 곳의 정보와 필요 인원에 대한 정보를 게재하여 신청자를 받고 있으며, 전국에서 온 자원봉사자들이 시설물 복구와 이재민 지원 등 다양한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또한, 구마모토의 따뜻한 기후와 풍요로운 자연환경에서 자란 토마토, 가지, 목이버섯, 수박 등 다양하고 품질 좋은 농산물을 애용하여 수익의 일부가 지진 복구에 쓰여질 수 있도록 하자는 움직임도 전국에서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

가마다세! 구마모토!

히메지성(姫路城), 나고야성(名古屋城)과 함께 일본의 3대 명성으로, 400년에 걸쳐 난공불락의 성으로 이름을 떨쳐온 구마모토성(熊本城)의 피해 모습은 이번 지진의 충격을 국내외에 극명하게 알렸다. 구마모토성의 복구에는 무너진 석벽들을 퍼즐처럼 하나하나 번호를 붙여 원래대로 쌓아가는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10년 단위의 장기적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온전히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기까지는 20년에서 30년 정도 걸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6월 1일에는 조명 복구를 완료하여 지진 당시 충격을 입은 모습 그대로의 구마모토성을 다시 비추기 시작했고, 6월 중순부터는 지진으로 활동을 중단했던 구마모토시 볼런티어 가이드 그룹이 “상처받은 현재의 모습도 역사의 한 페이지”라는 테마로 구마모토성 안내를 재개했다. 구마모토성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과 복구 과정 자체가 소중한 관광자원이 되고 있는 것이다.

복구의 손길로 분주한 가운데, 다시 활기를 띄고 있는 구마모토 시가지에서 가장 눈에 많이 띄는 풍경은 곳곳에 붙어있는 ‘가마다세! 구마모토!(がまだせ! 熊本!)’ ‘힘내자!’라는 뜻의 구마모토 방언으로 쓰여진 응원 문구와 발그레한 볼을 드러내며 두 팔을 번쩍 들고 응원하고 있는 모습의 구마모토현 캐릭터 구마몬(くまモン)이다. 활발하고 친숙한 이미지로 전국에 구마모토를 알렸던 구마몬은 지진발생 후 SNS 운영 및 대외 활동을 모두 중단했다가 5월 5일 어린이 날을 맞아 활동을 재개하여 전보다 더 활발히 위로가 필요한 곳, 구마모토를 향한 응원에 보답하는 곳에 나타나 치유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현재의 구마모토는 앞으로 긴 시간 동안 극복해야 할 과제들을 안고 있으면서도 이번 지진에서 교훈을 얻어 향후를 대비하는 작업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분명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동시에 더 좋아질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있기에 구마모토의 매일매일은 어제보다는 조금 더 활기를 띤 오늘이 될 것이다. 아직도 완전히 끝나지 않은 여진과 재해의 그림자로부터 구마모토가 하루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지켜봐 주시길 바라는 마음이다.

작성자 · 구마모토시청 정책국 종합정책부 국제과 국제교류원 이영수
기사작성 협조 · 구마모토시청, 구마모토성 종합사무소



끊임없이 빛나는 일한 우호의 불꽃 히오키시와 남원시, 18년간의 발자취

산업 관광

1867년 사쓰마번(薩摩藩)은 파리만국박람회에, 현 가고시마현 히오키시 히가시이치키정(鹿児島県 日置市 東市来町)의 미야마(美山, 당시는 나에시로가와(苗代川))에서 구워낸 시로사쓰마(白薩摩) '니시키테(錦手, 흰 유약을 입힌 도자기에 적·녹·황·자·청 등의 투명유약의 덧그림을 그려 넣는 기법) 대화병' 등을 출품했다.

당대 최첨단을 자부하던 유럽인들은 그 정교한 기술과 현란한 색채 감각에 놀랐고 '사쓰마 도자기'의 명성은 단번에 세계로 알려졌다.

나아가 1873년, 제12대 심수관은 오스트리아 만국박람회에 금채(金彩)를 입힌 '니시키테 대화병' 한 쌍을 출품하여 절찬을 받았다.

이후 시로사쓰마는 유럽, 러시아, 미국 등으로 수출 길이 열렸으며, 이 제품은 'Satsuma ware'라 불리며, 일본 도자기의 대명사로 일컬어질 정도가 되었다.

이 작품을 만들어낸 도공의 선조는 지금으로부터 400년 전, 한반도에서 동중국해의 파도를 넘어 아득히 먼 사쓰마 땅에 와서, 미야마를 마지막 거처로 정한 뒤 오늘에 이르고 있다.

가고시마현 사쓰마 반도의 거의 중앙에 위치하며, 동중국해 연안에 일본 3대 사구 중 하나인 후키아게하마(吹上浜)가 있는 히오키시는 풍요로운 자연과 역사로 수놓아져 있다.

400년 이상의 역사를 자랑하는 사쓰마 도자기는 둥글고 아름다운 표면에 기품이 감도는 격조 높은 매력의 '시로몬(시로사쓰마)'과 소박한 감촉 속에 강인함을 간직해, 애착을 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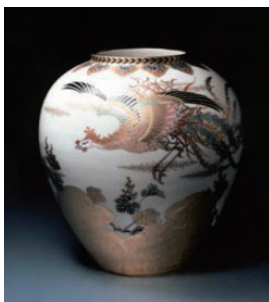
애탕이 느껴지는 구로몬(구로사쓰마)

끼게 하는 ‘구로몬(구로사쓰마)’이 있다. 이는 ‘미와 실용’ 우아함과 실용성을 모두 갖춘 도자기로 호평 받고 있다.

1640년경 발견된 것으로 알려진 유노모토 온천(湯之元温泉) 마을과 많은 위인, 문인이 방문했다는 후키아게 온천(吹上温泉) 마을은 피부병이나 신경통, 부인병 등에 효과가 있다고 하여, 질병을 치유하려는 많은 사람들로 붐빈다.

가고시마현에서도 유수의 고구마 산지인 히오키시에는 이를 원료로 하는 고구마 소주 제조가 활발해, 수많은 명주가 탄생하고 있다. 이 외에 고급 식재료로 요리 집이나 호텔 등에서 사용되는 료쿠치쿠(緑竹, 죽순의 일종), 딸기, 파, 아스파라거스 등의 생산이 활발하며, 사계절을 오감으로 느낄 수 있다.

히오키시와 남원시는 사쓰마 도자기의 발상지라는 것이 인연이 되어, 구(旧) 히가시이치키정 시대인 1998년에 개최



격조 높은 매력의 시로몬(시로사쓰마)

된 ‘사쓰마 도자기 400년제’를 계기로 초등학교 상호교류를 비롯하여 다양한 교류가 이어지고 있다.

2008년 히오키시와 남원시 간에 ‘문화교류 우호관계 협약’을 체결하고 더욱 활발히 교류하고 있다.

초등학교 상호교류

히오키시의 초등학교를 남원시 교룡초등학교로, 교룡초등



사쓰마 도자기

학교 학생을 히오키시의 미야마초등학교로 보내 홈스테이 등을 통해 일한 양국 문화의 상호 이해를 추진하고 있다. 미래를 짚어질 학생들로 인해 일한 양국이 보다 더 좋은 파트너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

‘춘향제’ ‘미야마 가마모토 축제’의 상호교류

올해로 31번째를 맞는 ‘미야마 가마모토 축제’는 사쓰마 도자기의 발상지인 미야마에서 11곳의 가마를 중심으로 11월 초순경 개최되며, 많은 사쓰마 도자기 팬이 방문하고 있다. 축제의 분위기를 살리는 ‘남원시립국악단’과 ‘한국 태권도 팀’이다. 한국 무용과 연주 그리고 국기인 태권도의 박력 넘치는 시범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다.

매년 5월, 남원시에서 개최되는 ‘춘향제’에는 히오키시 시장을 비롯하여 공모로 참가한 시민이 홍보 대사로서 2년에 한번 방문하여, 히오키시의 관광이나 산업 홍보, 우호친선 등을 담당한다. 올해도 성대히 개최된 제86회 춘향제에 부시장, 시의회 의장 등이 방문하자 따뜻하게 반겨주며 두 시의 우호관계를 재인식할 수 있었다.

스포츠 상호교류

2016년 1월, 남원시 검도회의 초중학생 선수단이 히오키시를 방문하여 히오키 시내의 검도 스포츠 소년단과 교류시합을 가졌다.

남원시에서는 매년 세계 각지에서 온 많은 검도 선수가 참가한 가운데 ‘조병용 선생 추모 남원오픈 국제검도대회’가 개최



많은 방문객으로 북적이는 예구치 하마 해안

되고 있으며, 6월 개최된 제24회 대회에는 히오키시 검도연맹도 초중학생을 비롯하여 고등학생, 대학생, 사회인으로 결성된 팀이 단체전에 출전했다. 시작한지 얼마 안 되는 검도 교류지만, 앞으로의 우호관계 발전을 기대하고 싶다.

끊임없이 빛나는 일한 우호의 불꽃

미야마에는 '사쓰마 도자기 400년제'에 남원시에서 가져온 '불'이 꺼지지 않고 켜져 있다. 400년 전, 초대 도공들은 얼마 안 되는 흙과 유약은 가져왔지만, '불' 만큼은 가져 오지

못했다고 한다.

이에 도공들의 연고지인 남원시에 '불'을 나누어 달라고 요청했으며, 1998년 남원시의 전면적인 협력으로 '불'이 동중국해를 건너, 히오키시 미야마에 다다를 수 있었다.

이 '불'은 일한 우호의 불꽃으로서 끊임없이 불타오르고 있다. 이 '불'처럼 히오키시와 남원시, 일본과 한국의 교류가 끊임없이 계속되기를 바란다.

(집필: 히오키시, 협력: CLAIR, Seoul)



미야마 가마모토 축제에 온 남원시립국악단의 우아한 춤



검도 교류

스웨덴 댄스와 일본

스웨덴 댄스에서 시작된 일본과의 깊은 인연을 말하는
주한스웨덴대사관 마리안 비룬드(Marianne Bylund) 1등 서기관의
인터뷰를 통해, 일본과 스웨덴 나아가
한국과의 문화 차이나 공통점 등에 대해 들어보았다.

일본과는 어떤 인연이 있었나요. 일본어를 공부하게 된 계기는.

17살 때, 집과 학교만을 오가던 지루한 일상에서 벗어나려 스웨덴 댄스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댄스 그룹의 멤버 중 한 명인 일본인 친구가 모두에게 일본에 갈 것을 제안했고, 1978년 저를 포함해서 약 20명의 멤버가 스웨덴 포크 댄스 교류를 위해 일본으로 건너갔습니다. 그곳에서 1950년대 일본인에게 스웨덴 댄스를 가르치던 한 스웨덴 사람을 만났고, 그를 통해 댄스를 배우고 싶어 하는 일본인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때 '나도 그들처럼 일본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떠오른 생각이, 스웨덴 외교부에 들어가면, 주일스웨덴대사관에서 일하면서 일본에 살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근무하게 된 스웨덴 외교부였지만, 제 생각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여러 나라를 전전하다 무려 28년이나 걸려, 겨우 일본에 거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일본어를 배우게 된 동기는, 스웨덴 댄스를 통해 일본인과 함께 춤추며 교류할 수는 있었지만, 영어만으로는 의사소통이 어려웠기에 그들과 소통하고 싶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일본어 공부방법은. 어렵다고 느끼거나, 재미있다고 생각한 점은.

저는 일본어 쓰기와 읽기 공부가 싫어서, 스웨덴에서 일본어 회화 수업을 들었습니다. 1년 반이 지나, 그간 배운 말이 통하는지

日本との縁は。そして日本語を勉強したきっかけは。

17歳の頃、家と学校だけを行き来するつまらない日常から抜け出そうと、スウェーデン・ダンスを習い始めました。ある日、ダンス・グループのメンバーの一人だった日本人の友達がグループのメンバーに日本に行ってみないかと提案し、1978年に私を含め、約20人のメンバーがスウェーデン・フォークダンス交流のため、日本へ渡りました。そこで、1950年代に日本でスウェーデン・ダンスを教えていたあるスウェーデン人に出会い、彼を通じてスウェーデン・ダンスを習いたがる日本人達にも出会うことができました。その時「私も彼らのように日本に住みたい」と思うようになりました。そして、思いついたのが、スウェーデン外務省に入れば、駐日スウェーデン大使館で働きながら、日本に住めるということでした。その思いで働くことになったスウェーデン外務省でしたが、私の思いは叶わず、いろいろな国を転々とし、なんと28年がかりでやっと日本に駐在することができました。私が日本語を勉強したきっかけは、スウェーデン・ダンスを通じて日本人と一緒にダンスを踊りながら交流することはできたものの、英語だけではコミュニケーションが難しかったため、彼らとコミュニケーションしたいと考えたことでした。

日本語の勉強方法は。難しいと思ったこと、面白いと思った

알아보러 일본에 갔습니다. 그 당시에는 역에도 영어 안내가 없었고, 온통 일본어였습니다. 회화 공부만 했던 저로서는 전철 요금 안내도 읽을 수 없었지만, 역무원과의 대화는 정확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일본어를 공부하며 어려웠던 점은 존댓말이었습니다. 스웨덴에는 존댓말이 없어 상대와 관계 없이 같은 어법을 씁니다. 또, 일본어로는 보통 “커피 어떠세요?” 라고 주어를 빼고 물어보지만, 스웨덴에서는 주어를 포함해서 모든 단어를 말하지 않으면 통하지 않습니다. 더욱 흥미로웠던 점은 많은 분들이 일본인에게 물어볼 때 ‘No’가 들어가는 질문을 피하라고 알려줬던 점인데요, 예를 들어 “배고프지 않으세요? (Aren't you hungry?)”라고 물었을 때, “네(Yes)”라고 대답하면, 스웨덴 사람들은 제 대답을 “배고파요.(I'm hungry)”라고 이해하지만, 일본인들은 그 반대로 이해합니다. 이런 점에서 일본인에게 “배고프시죠?(Are you hungry?)” 라고 물어보아야, 그들의 대답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다는 점이 흥미로웠습니다.

일본에서의 추억은.

일본에서는 아주 멋진 추억들뿐이었지만, 스웨덴은 지진이 없어 주일대사관에 근무했을 때 일어난 2011년 동일본대지진은 무서운 경험이었습니다. 평소라면 지진이 일어나도 별로 반응하지 않던 일본인이었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그 후, 지진에 대한 불안에 떠는 재일스웨덴인의 문기가 대사관으로 쏟아졌지만, 자연재해라 우리도 대응에 고심했습니다.

일본에서 받은 문화 충격은.

일본에서 받은 문화 충격은 사람들의 딱딱한 인사법과 바닥에서 자는 것, 화장실에서 폭포 소리가 들리는 것 등이었습니다. 또, 스웨덴에서는 각자 사용할 때마다 욕조를 비우지만, 한번 받은 목욕물을 여러 사람이 같이 쓰는 일본의 목욕문화에 놀랐습니다. 물론, 가장 큰 문화 충격은 언어였습니다. 프랑스에서는 프랑스어를 몰라도 스웨덴과 같은 문자를 쓰기 때문에 읽을 수는 있지만, 일본에서는 전혀 읽을 수 없다는 것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일본에서 한국으로 근무지를 옮기고, 두 나라의 차이점이나 공통점을 느낀적이 있다면.

한국과 일본의 흥미로운 공통점은 신발을 벗고 실내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둘째, 두 나라 사람들은 세계에서 최고로 정직해서, 지갑이나 컴퓨터를 두고 자리를 비워도 관촬을 정도입니다. 셋

ことは.

私は日本語の書き取りや読み取りの勉強が嫌いで、母国で日本語会話の授業を受けました。一年半が経ち、私は今まで勉強した日本語が日本で通じるかを試しに日本に行きました。当時は、駅にも英語の案内がなく、全て日本語でした。会話の勉強しかしていなかった私は、電車運賃の案内も読めませんでしたが、駅員との対話は正確に理解することが出来ました。

日本語の勉強で難しかったのは敬語でした。スウェーデンには敬語がないので、相手に関係なく同じ話し方をします。また、日本語では普通、「コーヒーいかがですか」と主語を抜いて質問をしますが、スウェーデンでは主語を含めた全ての単語を話さないと通じません。さらに興味深かったことは、多くの人が日本人に質問する際には、「No」が含まれた質問は避けるべきだと教えてくれたことです。例えば、「お腹は空いてないか? (Aren't you hungry?)」と質問をし、「はい(Yes)」と答えると、スウェーデン人は私の答えを「お腹が空いている(I'm hungry)」と理解しますが、日本人はその逆の意味で受け止めます。そのような点から、日本人には「お腹が空いているか(Are you hungry?)」と尋ねることで、彼らの答えを正確に理解することができるという点が面白かったです。

日本での思い出は.

日本での思い出は非常に素晴らしいものばかりでしたが、スウェーデンは地震がありませんので、駐日スウェーデン大使館で勤務していた時に起きた2011年の東日本大震災は恐ろしい経験でした。普段なら地震が起きても日本人はあまり反応していませんでしたが、その日は違いました。その後、地震について不安を抱えた在日スウェーデン人から問合せが大使館に殺到しましたが、自然災害でしたので、私たちも対応に苦慮しました。

日本で受けたカルチャー・ショックがあれば.

日本で私が受けたカルチャー・ショックは、人々の堅苦しい挨拶方法や床で寝ること、トイレで滝の音が流れることなどでした。また、スウェーデンでは各自が使用する度に湯船のお湯を変えますが、一度湯船に入れたお湯を複数の人が使用する日本のお風呂文化には驚きました。もちろん、最も大きいカルチャー・ショックは言語でした。フランスではフランス語が分からなくてもスウェーデンと同じ文字を使っているので、読むことはできますが、日本では全く字が読めなかった点に大きな衝撃を受けました。



째, 한국인과 일본인의 영어 수준은 매우 높지만, 읽고 쓰기에 중점을 두고 있는 듯합니다. 또, 한국과 일본의 학교 시스템은 편안한 분위기의 스웨덴과는 달리, 매우 힘들다는 이미지가 있어요. 스웨덴에는 '선후배'의 개념이 거의 없는데 한국과 일본은 서열 중심의 사회라는 인상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한편, 두 나라의 차이점은 성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일본인은 스웨덴 사람과 성격이 비슷해서 과묵하고 조용하지만, 한국인은 생각한 바를 표현하는데 망설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끔 일본인과 대화할 때, '추측 게임(Guessing)' 을 하는 듯합니다. 또, 한국 음식은 맵고, 두 나라에서 운전할 때 좌우가 반대며, 한국에서는 지진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도 큰 차이점입니다.

좋아하는 일본 문화나 음식 그리고 관광지 등을 추천해주세요.

먼저, 일본의 이자카야(선술집)는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최고의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일본 요리는 일본에서 처음 먹은 가쓰동(커틀릿 덮밥)입니다. 또, 스키야키나 샤브샤브도 나베를 둘러싸고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훌륭한 음식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음식 이외에도 기모노, 꽃꽂이, 꽃놀이 문화를 좋아합니다.

추천하고 싶은 일본의 관광지는 아주 많지만, 만약 한번도 일본에 가본 적이 없다면, 교토(京都)와 나라(奈良)를 추천합니다. 일본에는 외국인 여행객을 위한 훌륭한 철도 패스 시스템이 있어, 보다 효율적이고 저렴하게 일본을 여행할 수 있습니다.

일본어를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조언이 있다면.

일본어 공부에 많은 시간을 들이고 포기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가능한 처음에는 고국에서 일본어를 배워 기초를 탄탄히 다지고, 그 다음 일본에서 생활하며 공부할 것을 추천합니다. 힘내세요!

일본에서 한국에勤務地가移って, 日韓の違いや似ている点など, 感じたことがあれば.

日本と韓国が共通して持っている面白い点は, 靴を脱いで室内に入ることです. 二つ目は, 日韓の人々は世界一正直であり, 財布やパソコンを置いたまま席を外しても問題ないほどです. 三つ目は, 日本人と韓国人の英語のレベルは非常に高いものの, 読み書きに重点が置かれているように感じます. また, 日韓の学校のシステムは, リラックスした雰囲気のスウェーデンとは違って, 非常にタフなイメージがあります. 更に, スウェーデンには「先輩・後輩」という概念がほとんどなく, 韓国と日本は序列中心の社会という印象を強く受けました.

一方, 日韓の違いは性格だと思います. 一般的に, 日本人はスウェーデン人の性格に似ていて, 無口で静かですが, 韓国人は思ったことを表現することを躊躇いません. そのため, たまに日本人と会話をしていると, 「推測ゲーム(Guessing game)」をしているような気がします. また, 韓国の食べ物は辛いこと, 日韓で運転をする時に左右が反対であること, 韓国では地震を心配する必要がないことも日韓の大きな違いです.

日本文化や食べ物などでお好きなものがあれば. また, お勧めの観光地などについても教えてください.

まず, 日本の居酒屋はみんなが一緒に楽しめる最高の場所だと思います. そして, 私が一番好きな日本料理は, 日本で初めて食べた日本料理であるカツ丼です. また, すき焼きやしゃぶしゃぶも鍋を囲み, みんなで一緒に楽しめる素晴らしい食文化だと思います. 食べ物以外だと, 着物や生け花, 花見の文化も好きですね. お勧めしたい日本の観光スポットは非常に多くて難しいですが, もし一度も日本に行ったことがないのであれば, 京都と奈良をお勧めします. また, 日本には外国人旅行者のための素晴らしいレール・パスがあるので, より効率的かつお手ごろな価格で旅行することができます.

日本語を勉強している方にアドバイスがあれば.

日本語の勉強にじっくりと時間をかけ, 諦めないことが何より大事です. 可能であれば, 最初は母国で日本語を習って基礎を固め, その後, 日本で生活しながら勉強することをお勧めします. 頑張ってください!

미우야

‘메밀’이라는 우리에게 친숙한 식재료의 조리법을 다양화해서 모두의 건강에 이로우면서도 함께 즐길 수 있는 코스요리를 만들고 싶다는 미우야 정문정 대표와의 인터뷰를 소개한다.

미우야라는 이름은 어떻게 짓게 되셨나요.

미우야(美羽也)라는 글자 그대로 맛에 날개를 단 것처럼 맛있는 음식을 만들자는 뜻에서 지었습니다. 한국어와 일본어로 모두 쓸 수 있고 의미도 잘 전달할 수 있으니까요.

언제부터 요리를 하고 싶으셨는지. 가게를 내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글쎄요. 언제라고는 할 수 없지만, 항상 잠재적으로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요리 학교를 다니면서 셰프가 된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 다른 일을 하다 요리를 하게 된 분들이 많습니다. 잠재적으로 먹는 것을 좋아하고 즐기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음식을 만들게 되고, 내가 만든 음식을 팔게 되는 과정에 이르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일본에서 7년동안 공부했고 대기업에 다니기도 했어요. 결혼하고 나서는 일본어를 가르쳤는데 강의시간을 조절하며 아이를 키우는데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크고 나니, 내가 정말 재미있다고 생각하는 일을 해보고 싶어지더군요. 평소에도 워낙 집에서 만들어 먹는 것을 좋아했기 때문에 ‘요리’와 관련된 일을 해보자고 생각하게 되었죠. 특히 일본에서 먹었던 맛있는 소바를 한국에서도 먹을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소바 전문점을 열게 되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메밀국수 맛이 많이 다른데, 그 차이점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한국 분들은 쫄깃한 면을 좋아하기 때문에 밀가루가 들어



갑니다. 사실, 슈퍼에서 파는 메밀국수의 성분을 보면 메밀 20~30%에 70%가 밀가루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면은 일본과 달리 메밀 향도 없고 맛도 다르지만, 식감이 쫄깃합니다. 이런 이유로 많이 다르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저희는 3개 지점 모두 메밀 함량이 75%인 면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수타 메밀면을 고집했지만, 만들기도 힘든데다 예상보다 손님이 늘어 수요를 맞추기 어렵게 되었죠. 결국 외부에 면을 맡기는 대신, 메밀 함량만은 꼭 지키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대부분 봉평산을 쓰고 있지만, 홋카이도처럼 바람이 많이 부는 제주도에서도 질 좋은 메밀이 많이 재배되고 있더군요. 그래서 봉평산과 함께 조금 단가는 높지만 제조도산 메밀을 15%정도 섞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주도산 메밀의 함량을 더 늘려 갈 생각입니다.

처음 가게를 시작하며 어려웠던 점이나 변화된 점이 있다면.

어려웠던 점은 역시 수타면을 고집한 것입니다. 면을 만드는 과정이 굉장히 고된데다 손님은 늘어만 가니 너무 힘들더군요. 지금은 메밀 함량만 지키면서 면을 제공하고 있어 일이 조금 수월해졌습니다. 또, 종종 손님들이

“왜 이렇게 소스가 짜냐”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면을 소스에 살짝 찍어 메밀 향을 즐기면서 드시면 됩니다”라고 매번 설명을 드리지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단골 손님도 늘어, 전과 비교해서 이런 설명을 하는 일이 줄어들었습니다.

일본 요리 관계자와 인터뷰를 하다 보면 “본토 맛을 그대로 재현하는 것이 좋다” 거나, “어느 정도 대중화를 위해 현지화 해야 한다” 는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요.
사업적으로는 대중적인 면을 충족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너무 큰 틀에서는 벗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모리소바를 예로 들자면, 아무리 일본식이 좋다고 해도, 한국 손님들은 소스가 너무 짜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저희는 단맛이 더 들어간 붓카케 소스나 모리 소스를 반만 섞어, 농도를 조절해 드립니다. 그런 식으로 얼마든지 대응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리소바 소스를 한국 분들의 입맛에 맞게 전부 다 바꾸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큰 틀을 지키면서도 현지인들의 기호에 맞게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본은 적은 양의 다양한 음식을 즐기지만, 한국은 대체적으로 많은 양의 한 가지 음식을 다 같이 먹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한국 분들의 스타일에 맞추어, 음식의 양을 늘리거나, 가족 모두가 먹을 수 있는 사이드 메뉴를 추가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일본 요리의 매력은 무엇이며, 어떤 점이 한국 분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는가.

한국에서 일본 요리하면 스시, 사시미 등으로 그 이미지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에서 생활하며 보니 간단하지만 소재 본연의 맛을 즐길 수 있는 요리법들이 많더군요. 일본 요리가 조리법이나 관련 데이터는 물론, 식재료 보관방법 등에서 앞선 부분이 많다고 느꼈습니다. 일본 요리는 재료 활용도에 있어서도 매우 좋은 요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미적으로도 보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음식 맛을 빨리 느끼려는 경향이 있지만, 일본은 좀 더 예쁘게 음식을 담아 먹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일본 요리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저희 가



게도 예쁜 일본 그릇에 보기 좋게 음식을 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일본의 이런 매력을 저희 가게에서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의 목표는.

쉽지는 않겠지만 메밀 함량을 늘려가서, 언젠가는 100% 메밀면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리고 메밀면의 80%를 제주 산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저희 가게는 제주 산 메밀을 사용합니다”라고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또 하나는 건강한 음식을 만드는 것입니다. 계절에 치우치지 않고, 쉽게 상하지 않으면서, 항상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추구합니다. 예를 들면, 사시미는 훌륭한 음식이지만, 유행이 돌거나 계절이 아니면 먹을 수 없고, 어떤 음식은 조리에 너무 긴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서민적인 음식이면서 몸에도 좋고, 매일처럼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제공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단골 손님들은 마치 코스요리처럼 가게 메뉴를 순서대로 드시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 점에 착안하여 앞으로는 메밀을 이용한 다양한 코스요리를 연구해서 손님들이 즐길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몸과 마음을 깨끗이 치유하는 ‘일본 유산’의 고장 돗토리현 미사사정



미사사 온천의 상징인 가와라부로 노천탕

미사사정 개요

미사사정(三朝町)은 돗토리현(鳥取県) 중앙부에 위치하며 동서로 24km, 남북으로 19km, 총 면적 233.52km²이며, 면적의 90%를 산과 임야가 차지하고 있고, 일급 하천인 텐진가와(天神川) 강과 그 지류인 3개의 계곡을 따라 64개 취락이 있는 1953년에 탄생한 인구 약 6500명의 마을이다. 주요 산업은 관광업과 농림업으로 세계 굴지의 라뎀 함유량을 자랑하는 ‘미사사 온천’에는 연간 40여만 명이 머물다 간다. 또 수직 절벽에 세워진 불당인 국보 나게이레도(投入堂)가 있으며, 국립공원이기도 한 슈겐도(修験道)의 고찰 미토쿠산(三徳山)과 더불어, 두 지역은 2015년 4월 일본 최초로 ‘일본 유산’에 등재되었다.

3일째 아침이면 병이 낫는다는 미사사 온천

미사사(三朝) 온천의 기원은 지금으로부터 약 850년 전, 전쟁에 패한 오쿠보 사마노스케(大久保左馬之祐)라는 장수가 세력의 부흥을 꿈꾸며 미토쿠산을 찾았을 때, 흰 늑대의 인도로 온천을 발견했다는 ‘백랑(白狼) 전설’에서 유래하고 있다.

이 발견 이래로 미사사 온천은 병을 고치는 탕치장(湯治場)으로 변형했으며, 1916년에 고온 온천 중 라뎀 함유량이 일본 최고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세계 굴지의 라뎀 온천으로 각광을 받아 불로장수의 탕으로 사랑 받고 있다. ‘미사사’라는 마을 이름도 이 온천의 효능을 나타낸다는 설

이 유력한데, ‘온천을 하고 3일째 되는 날 아침이면 병이 낫는다고 해서 미사사(三朝, 3일째 아침이라는 뜻)라 명명했다고 한다.

3박자를 갖춘 온천

온천 마을에는 약 80곳의 원천이 있으며, 각 원천에서는 40℃부터 70℃까지 온천수가 매일처럼 힘차게 솟아나고 있다. 또 마을을 가로질러 흐르는 미토쿠가와(三徳川) 강을 끼고 양쪽으로 25채의 여관이 늘어서 있어 온천 마을의 정서가 넘치는 거리 풍경을 만들어 내고 있다. 모든 여관은 원천수를 그대로 흘려 보내는 원천 가케나가시(源泉かけ流し) 온천을 갖추고 있으며, 그 밖에도 온돌과 증기 목욕, 족탕 같은 다양한 온천을 즐길 수 있다.

무색 투명한 수질은 ‘숨 쉬기에도 좋고, 마셔도 좋고, 몸을 담가도 좋다’고 알려져, 온천 마을 곳곳에 자리한 온천수 음용장에서는 가져온 용기에 온천수를 받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

지금에 되살아나는 ‘현대식 탕치’

역사에 남은 수많은 문호도 요양하러 왔다는 미사사 온천에서는 과거의 탕치(湯治)를 현대식으로 되살려, 심신을 치료할 수 있는 ‘현대식 탕치’를 추진하고 있다.

현대식 탕치는 온천을 마음껏 즐기면서 건강을 되찾으려는 현대인에게 적합한 새로운 탕치다.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미사사 온천 전경



미토쿠산의 상징인 나게이레도 불당

여관에 머물면서 ‘열기욕요법(熱氣浴療法)’과 광머드 찜질을 하는 ‘고데이시프(鈹泥湿布)’ 같은 온천 요법을 받을 수 있으며, 고즈넉한 온천 마을에서 느긋하게 시간을 보내며 심신을 달랠 수 있다.

일본 유일의 ‘온천 요법’

일본의 미사사 온천에서만 이루어지는 온천 요법의 하나로 ‘라돈 열기욕요법’이 있다. 이는 신경통이나 류머티즘, 천식 치료에 이용되는 한편, 미사사 온천에 숙박하는 일반



온천 마을의 밤하늘을 수놓는 불꽃놀이

투숙객도 손쉽게 체험할 수 있다.

이 요법은 온천수로 뜨거워진 실내에 30분 가량 들어가 땀을 내고 대사를 촉진하는 것으로, 온천수에 포함된 라듐이 기화하며 생기는 미량의 라돈 방사선을 마심으로써, 체내의 세포가 자극을 받아 혈액 순환 개선과 신체의 통증 경감 같은 ‘호르미시스 효과’라 불리는 건강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또 이런 요법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은 오스트리아의 온천지인 바드가슈타인과 미사사 온천뿐이라고 한다.

한편 ‘고데이시프’로 불리는 찜질 치료는 온천수를 넣은 점토질의 흙을 가마에서 80℃까지 데워, 천으로 겹겹이 싸 환부에 찜질하는데, 30분 정도 지나면 혈류가 증가하고 통증의 원인 물질이나 노폐물을 배출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한다. 요통이나 관절통 외에 기관지 천식 등 호흡기, 염증 질환에도 효과가 있다고 한다.

이들 치료법은 1958년 무렵부터 도입되었는데, 현재도 그 요법에 변함이 없다는 점에서 그 효과를 증명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 체험자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95%의 체험자가 건강 효과를 느꼈다고 응답했으며, ‘통증이 줄었다’ ‘호흡이 편해졌다’ ‘발이 가벼워져 걷기 편해졌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어 미사사 온천의 수질이 뛰어남을 알 수 있다.

심신을 맑게 하고 치료하는 힐링 마을

마을의 주요 산업인 관광업은 지금까지 미사사 온천을 중심으로 발전해 왔다. 그리고 앞서 등재된 일본 유산에는 지금까지 마을 관광의 양대 축인 미토쿠산과 미사사 온천이 그 대상이 되었다.

미토쿠산 참배로 육근(六根) 즉 눈, 귀, 코, 혀, 몸, 뜻을 정화하고, 미사사 온천의 현대식 탕치로 육감(六感) 즉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마음을 치료한다는 지금까지의 마을의 역사가, 이곳에만 있는 일본 굴지의 귀중한 보물로 인정 받은 것이다.

기회가 되면 꼭 ‘심신을 정화하고, 치료하는 마을 미사사정’을 방문, 일본 유산으로 등재된 미토쿠산과 미사사 온천을 비롯해, 독자 여러분께 내일의 활력을 안겨 줄 미사사정의 매력을 체험하시기 바란다.

(집필: 돗토리현 미사사정, 협력: CLAIR, Seoul)



지난 7월 29일,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에서 일본가요대회 본선대회가 개최되어, 많은 예선 응모자 가운데 선발된 16팀이 열린 응원 속에서 뛰어난 노래 실력을 겨루었다. 특히 이날 축하공연을 위해 무대에 오른 젠틀리(Gently, HERO-SWAY로 개명)와 아스카 도모미(飛鳥とも美)는 “한국 관객의 적극적인 호응에 정말 놀랐다”며, “많은 한국 분들이 일본 노래를 좋아해 주시는 모습이 너무 기뻐다”는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이번 호에서는 이들과의 인터뷰 내용을 소개한다.

아스카 도모미 인터뷰

한국은 처음이라고 들었는데, 어떤 인상을 받으셨나요.
한국은 이번이 처음인데, 음식이 정말 맛있다.

엔카(일본의 트로트)의 매력은 무엇인가요.
엔카 그 자체가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만 난터우현(南投縣) 관광친선대사와 벚꽃친선관광대사를 역임하는 등 활발히 활동하고 계신데, 대만 활동을 시작한 계기와 인상에 남는 추억이 있다면.

대만의 모 가라오케 잡지의 중문판 창간에 앞서 캠페인 걸을 맡은 것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말도 모르는 상태에서 방문했지만, 활동을 거듭할 수록 점차 의사 소통이 가능해졌고, 말이 통하게 되었을 때는 정말 감동했습니다. 또 많은 대만 분들이 일본에 관심을 보이며, 열심히 일본어로 말을 걸어 주셨을 때는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현지 가라오케 가게에서는 엔카를 일본어로 부르는 분이 많아 놀랐습니다.



매일처럼 '미래 수첩'을 쓰는 것이 취미라고 들었는데, 어떤 내용을 적고 있나요. 그리고 쓰기 시작한 이유는 무엇인지.

5년 후, 10년 후 내가 어떻게 되고 싶은지, 이루고 싶은 꿈에 대해 적고 있습니다.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 미래 수첩을 쓰기 시작한 거죠.

앞으로의 목표나 활동 계획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이번에 한국도 방문했지만, 일본을 중심으로 대만을 비롯한 해외 활동을 넓히고 싶습니다.



젠들리 인터뷰

DJ 등 활동 폭을 넓히기 위해 ‘Gently’와 동시에 ‘HERO-SWAY’라는 프로젝트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Gently’와 ‘HERO-SWAY’라는 이름의 유래는 어떻게 되나요.

Gently라는 이름을 붙인 계기는 원래 우리 형제가 동안인 데다, 미래에 나이가 들어 할아버지가 되었을 때, 멋진 신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에서 Gently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수염이 어울리는...웃음).

Gently로 활동할 때는 댄스 & 보컬 유닛으로 무대에 섰지만, 현재는 DJ 활동이 메인이라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하기 위해 ‘HERO-SWAY’로 개명을 결정했습니다.

물론 지금처럼 신사로서의 마음을 가지면서, 여러분의 몸을 흔들게 하는 멋진 음악을 하자는 생각에서 ‘HERO-SWAY’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솔직히 말해 우리 형제의 성이 ‘스에히로’인데, 병원 등에서 ‘히로스에’로 잘못 불리는 적이 많아, 여기서 힌트를 얻었습니다(웃음).

현재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DJ를 하며 노래 부르는 스타일입니다! 원래 DJ란 그 장소의 분위기나 상황을 보면서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음악을 틀어줍니다. 저희 형제는 동생 KAZUKI가 DJ를, 형 YOUKI가 MC와 효과음을 맡고 있는데, 이제까지의 DJ처

럼 상황을 보면서 댄스 음악 등도 틀지만, 저희 음악을 틀고 DJ 부스에서 나와 노래와 퍼포먼스도 합니다.

한국과 일본에서 활동 중인데, 한국 활동의 계기는 무엇인가. 또, 한국에 대한 인상과 활동 중 어려웠던 점이나 추억에 남은 일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일본에서 열린 ‘한일 교류 LIVE’에 출연했을 때, 지금의 소속사 분이 “한국에서 활동하지 않겠냐?”고 했어요. 해외 활동에 관심이 있었고 뉴욕에도 갔었기 때문에 한국 활동을 바로 결심할 수 있었죠. 한국이라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한국인들의 성품입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좋은 분이라, 그 분들 덕분에 한국 생활에 금방 익숙해질 수 있었습니다. 어려웠던 점은 역시 언어예요. 라이브로 MC를 하거나 의사소통 등 한국 활동에 꼭 필요하니까, 지금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웃음).

형제로 활동을 시작한 이유가 있다면, 또, 함께 활동하며 좋았던 점이나 어렵게 느낀 점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원래, 형 YOUKI는 집골원 선생님이었고, 동생 KAZUKI는 개호사(요양복지사, 사회복지사)라는 전혀 다른 일을 하고 있었는데, 노래 부르는 것에 관심이 많았던 YOUKI가 ‘노래 불러보지 않을래’하고 권유한 것이 계기가 되어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좋은 점이라면 계속 함께 살았고, 서로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싸울 일도 없이 편하다는 것이죠.

지난해 한일축제한마당에 참가하게 된 계기나 참여하신 감상은 어떤가요.

음악을 통해 한국과 일본이 좀더 가까워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참가했습니다. 참여해 보니 일본인, 한국인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많은 분들이 참여했는데, 이렇게 세계인의 유대가 깊어질 수 있다니 최고다 싶었어요. 다시 한 번 음악의 저력을 느꼈습니다.

앞으로의 목표나 한국 활동 계획을 알려주세요.

일본,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활약하는 아티스트가 되고 싶습니다. 11월경 HERO-SWAY의 첫 앨범은 발매하고, 아시아 투어에 나설 예정입니다.

2016 한일포토콘테스트 日韓フォトコンテスト

응모기간 | 2016.7.20 ~ 2016.10.31

테마J

일본의 매력

韓國の魅力

테마K



<http://kjphotocon.org>

<http://jkphotocon.org>



일본문화원

페이스북에서도 확인하세요!

주 최

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 공보문화원

공동주최



후 원



주일한국대사관 한국문화원, 일본정부관광국 서울사무소, 서울재팬클럽, 교도통신사, 연합뉴스, 일본어저널

문의 | 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 공보문화원 02-765-3011 (내선 111)



오앗! 여긴 꼭
가봐야 돼!!

가깝고도 먼 이웃나라 일본. 여행만으로는 알기 힘든,
일본 속으로 들어가 겪은 허둥지둥 좌충우돌 유학생살기



일본의 명절 오봉야스미(お盆休み)를 앞두고
모두가 각자의 고향으로 향할 때 나는 여름방학
내내 교토를 지키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삼복 더위에 지쳐 정신을 못차리고 있었을 때, 나를 찾아 온
아쓰코 언니. 나는 마지못해 언니에게 몸을 맡긴 채 여행을 떠났다.
우리가 향한 곳은 매년 8월 일본 전국의 언론과 방송이 주목하는
도쿠시마(徳島).



이곳 저곳
구경할 곳이
많았지만 이번 여행의
목적은 아와오도리
(阿波おどり) 관람.

아와지시마와 도쿠시마를 잇는 오나루토교(大鳴門橋)와
말로만 들던 아와지시마의 소용돌이(淡路島のうず潮).

도쿠시마의 옛 이름인 아와(阿波). 420여 년의 역사를
가진 아와오도리는 일본의 명절 오봉(お盆)기간 중에
치뤄지는 도쿠시마현의 축제다.



누구든 어디서든
아무런 준비없이,
작은 공간만 있으면
그곳이 무대가 되지요.

주목할 것은 아와오도리의 중심이 되는 다양한 무용집단 '렌(連)'. 그저 춤이 좋아
결성된 렌을 비롯해 기업의 홍보를 목적으로 결성된 렌, 대학의 동아리, 상점가에서
구성한 렌 등 크고 작은 다수의 렌이 존재한다. 특히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는 렌을
'유명 렌'(有名連)이라 부른다. 매년 서프라이즈로 깜짝 등장하는 유명 연예인들을
기다리는 것도 큰 재미~!



아와오도리의
하이라이트는
전국에서 모여 든
춤꾼들이 춤을 추며
거리를 행진하는
아와오도리 퍼레이드!

굵직한 남자춤과
섬세하고 예쁜
여자 춤~
생생한 표정에
그만 심쿵!

와~ 이걸 마치
동양의
쌔바춤제~!!

이 지역 축제에 매년 일본 각지에서 모여드는 사람이 자그마치 약
130만명. 우리학교 전공교수님도 이 도쿠시마 출신이었습니다.



그럼요~
当然!

그러던 중 알게 된 놀라운 소식, 한복을 곁에 빼 입은 단정한 모습으로
아와오도리에 참가한 한국 무용단이 있었다. 우리의 국악약기가 아와
오도리의 장단을 연주하고 단아한 우리의 몸짓과 신명을 담아 선보인
한국풍 아와오도리.



이 팀을 이끈 분은 무용가 김묘선 스님.

(현) 교토 세이카대학 학장 유명 만화가 다케미야 케이코 교수님.